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 개최 배경 <참고1>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도출(특별전문위, '11.3~10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이슈 논의

□ 개최 개요(안)

- 일 시 : 5.30(수) 13:30~16:00
-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서초동) 국제회의장(지상1층)
- 참 석 :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 200여명
- 세부 구성

시 간	구 분		담 당
13:30~14:00('30)	등 록		
개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14:00~14:04('4)	환영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
발표 및 토론 (좌장 : 이광형 특별전문위 위원장)			
14:04~14:05('1)	진행순서 및 발표자 소개		사회자
14:05~14:20('15)	주제 발표 (2)	① 논의배경 및 이슈 소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
14:20~14:35('15)		②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를 통한 IP 허브 구축	한상욱(김&장 법률사무소)
14:35~15:30('55)	패널 발표 (6)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과기계(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소장) 산업계(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산업계(김정중 LG이노텍 상무) 변호사계(강희철 변협 부회장) 변리사계(고영희 성창 대표변리사) 사법계(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15:30~16:00('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 장
폐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참고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배경

- (배경)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애플-삼성간 소송 등 국내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속칭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의 국내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기업 대상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 및 아직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논의경과) 우리의 특허분쟁 해결제도는 특허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특허에 대한 판단이 상반될 우려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쟁점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허·기술 전문가의 소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소송 관할법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관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세부 개선안에 대한 상호간 입장차이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 역시, ‘특허 침해소송의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추진방향)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심층 논의를 위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3월~10월)*’를 구성하였고,
 - * 관련 부처와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 발명계, 법조계, 변리사계 등 총 10인
 - 연말까지 ‘특허소송 관할집중’과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가지 Agenda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안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의결될 예정.

<참고 2> 토론회 개최 장소 안내

- 장소 :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지상1층)

